



“스님, 살살 하이쇼.” “다들 재밌게 하자구요.” “화이팅! 화이팅!”

서로 친목하고 즐기자고 하는 경기니까 경기는 재미있게 ‘살~살~ 하자’고 했다. 말은 그랬지만, 심판의 휘슬이 울리자 분위기는 살벌(?)해졌다. 서브하는 것만 봐도 장난이 아니다. 언제 저런 실력을 쌓았지? 평소엔 근무 안하고 배구만 했나? 관중석의 응원도 결코 즐기자는 분위기가 아니다. 몸을 아끼지 않는 리시브, 국가대표를 방불케 하는 스파이크, 짝퉁 스카이 서브가 속출하며 경기는 뜨거워졌다. 물론 다 그렇게 잘 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날아오는 공을 등으로 받기도 하고, 금 밖으로 나가는 공을 애써 따라가서 건드려 접수를 잃고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분명히 앞으로 친 공이 옆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다. 그럴 때마다 작은 운동장은 웃음의 도가니가 된다. 가이산 흥류계곡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배구로 한마음이 되는 경쾌한 웃음의 바다를 해인사가 이루어 가는 현정이다.

신나는 경기 뜨거운 응원

공처럼 동글게 동글게

#배구로 하나 되는 치인리 10번지 사람들

장맛비도 하루 쉬는 6월 19일 가이산 해인초등학교 운동장이 하루 종일 시끌벅적했다. 8년만에 ‘해인사주지배 배구대회’가 열린 것이다. 해인사 스님팀, 종무소팀, 청년회팀, 가이산사무소, 가야농협, 해인초등학교(교사·직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의용소방대 등 8팀이 출전한 배구대회는 해인사를 중심으로 지역민들이 화합과 단결을 다지는 축제 마당이었다. 해인사 주지 현승 스님이 직접 사인을 한 배구공으로 시구를 하면서 시작된 배구대회는 두 개의 코트에서 참가팀 전체가 골고루 경기를 벌이는 풀리그방식으로 진행됐다. 9인조 배구에 선수가 모자라면 옆 팀에서 대어(?) 가능하고 발을 사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데다가 경기가 안 풀려 열 받으면 아무나 작전타임을 요구해도 되는, 그야말로 단합을 배구대회였다. 응원석도 마찬가지. 징과 북, 팽과리는 필수품이고 미처 준비를 못한 팀은 손가락으로 양은쟁반을 두드리기도 하고 냄비 뚜껑과 페트병도 동원됐다.

그런데 응원을 하면서 입장이 아주 난처한 사람도 많았다. 남편은 소방대 소속이고 동생은 해인청년회

팀에 출전했다는 어느 보살님은 양쪽코트를 누비며 응원했다. 오전엔 아이와 함께 선생님을 응원하던 ‘엄마’가 오후 준결승(해인초교 VS 관리공단)에서는 선생님을 외면하고 관리공단팀을 응원하는 ‘아내’로 변신하기도 했다. 해인초등학교 6학년인 동재는 면사무소 직원인 아버지가 선생님과 경기를 할 때 누굴 응원해야 할지 몰라 친구들과 제기치기 하며 놀았다. 해인사의 마스코트 동자승 문수승을 길상암 거주도 북을 치며 응원을 하다가 해인사 스님들과 선생님이 경기를 할 때 ‘이기는 편 우리 편’ 하는 심정으로 양쪽을 다 응원했다. 알고 보면, 운동장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치인리 10번지’에 사는 사람들이다. 경남 합천군 가이산 치인리 10번지는 해인사와 상가지역 해인초등학교까지를 아우르는 하나의 지번이다.

경기를 하는 선수나 응원하는 직원이나 가족들은 배구공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땀 흘리고 소리치며 더위도 잊었다. 그런 가운데 단연 주목을 받은 팀은 해인사 스님팀. 해인사 강원의 축구실력은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지만 이날 출전한 배구팀은 종무소의 국장 스님들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이를 전까지 비를 맞으며 강훈련(?)을 받았고 훈련 중 부상을 입은 스님까지 발생했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서서히 실력이 들뚝 나기 시작했다. 경기 뒤에 한 스님이 “스님팀은 떨어

지고 청년회나 종무소팀이 (결승까지) 올라가는 게 해인사의 작전 아니까요?”라고 설명했지만 믿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가 ‘승자’ 내년엔 더 멋진 만남을

웃음꽃 만발한 가운데 예선전이 끝나고 준결승을 거쳐 결승에 오른 팀은 해인청년회와 해인초교팀. 해인사 총무국장 심우 스님의 심판으로 진행된 결승전은 매우 수요일마다 배구 연습을 한다는 해인초교의 조지력을 앞세운 노련미와 해인청년회의 패기가 맞붙은 대결전이었다. 열치락뒤치락 하는 스코어를 기록하며 흥미진진하게 이어진 결승전은 결국 해인초교의 승리로 끝났다.

이날 참가한 8개 팀이 모은 참가비 80만원은 해인초등학교에 장학금으로 전달됐다. 이날 배구대회에 참가한 각 팀이 받은 상금은 ‘미안야 둥기 상금’으로 해인사 주지 현승 스님에게 전달됐다. 수행은 내려놓고, 업무는 미뤄두고, 가게는 문 닫고 배구공 하나로 만난 치인리 10번지 사람들, 8년만의 재회를 기쁘게 마무리하고 내년엔 더 멋진 만남을 기약하며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글=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사진=박재원 기자 jwpark@buddhapia.com

해인사주지배 배구대회 현장



▶목이 터져라 선생님들을 응원하는 해인초등학교 전교생 27명

▶“내년엔 나도 뛰어들까?” 본부석에서 해인초교와 해인청년회의 결승전을 관전하는 해인사 한주 정원 스님(왼쪽에서 두번째)과 주지 현승(왼쪽 첫번째), 울원 연구원 진일 스님, 원주 법준 스님, 교무국장 재경 스님, 선원장 선각 스님, 해인청년회가 잇달아 실점하자 안타까워 하고 있다.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기가 발생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단주
 크기 : 8mm×10mm×12mm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중)12×12×12cm 125,000원

예술품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판을 만들어 주어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쁠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하신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기가 발생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양이 은은하여 아름답으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돌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전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신약형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가면 해도 온열돌기 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속담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속담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속담(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격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치유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됩니다. 차가운배, 허리 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들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영미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실물크기(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오문 관세음보살보문묘법연화경요목

복상불소영가량장천장식사용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계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였으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전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단주
 크기 : 8mm×10mm×12mm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중)12×12×12cm 125,000원

예술품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판을 만들어 주어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쁠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하신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기가 발생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양이 은은하여 아름답으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격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복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복한3대 특산물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반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옥각돌**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격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치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런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자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허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름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들에게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온열돌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전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신약형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가면 해도 온열돌기 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속담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속담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속담(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격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치유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됩니다. 차가운배, 허리 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들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영미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